



절망·고통 끌어안고 빛나는 별을 보다

여수 출신 손상기 25주기 회고전 27일~1월 26일 GS칼텍스 예울마루

‘인물 누드’ 등 4개 섹션 46점·유품 전시 도시 음울한 모습 ‘공작도시’ 시리즈 눈길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여수의 전설 손상기. 그는 고통과 절망을 끌어 안고서도 마침내 빛나는 별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아름다운 화가 손상기를 전설에서 불러내야 합니다. 그 일을 시작하려 당신을 초대합니다.’

손상기 회고전을 준비하는 이들이 보낸 초청장에 적힌 글귀는 서른 아홉에 세상을 떠난 손상기(1949~1988)를 가장 잘 표현해 준다. ‘고통 속에서도 빛나는 별을 본 화가.’

여수시와 손상기 기념사업회(회장 김홍웅), GS예울마루(관장 이승필)가 손 작가를 기억하는 전시 ‘고통과 절망을 끌어안은 영혼-손상기 25주기전’을 개최한다. 27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GS칼텍스 예울마루 전시실.

3살 때부터 구루병을 앓아 척추만곡이라는 장애를 갖고 평생을 살아온 그에게 따라 다니는 이름이 있다. ‘한국의 로트렉’, 파리의 로트렉이 그러했듯, 손상기 역시 여수와 서울 하

늘 아래 살며 세상의 어두운 곳에 빛을 밝혔고, 어께 처진 쓸쓸한 사람들, 가난에 힘겨워하는 이들의 모습을 캔버스에 담았다.

회고전에 전시되는 작품은 모두 46점(드로잉 작품 제외)이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대여한 2점 이외에 모두 샴터화랑이 소유하고 있는 작품이다.

전시는 모두 4개 섹션으로 꾸며진다. ‘초기작’ 섹션에서는 시골 장터의 아낙네, 양지 바른 곳에서 별을 쬐는 노인들, 천진난만한 아이들 등 향토적, 민속적 분위기가 짙게 깔린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공작 시대’는 손상기의 대표작을 만날 수 있는 섹션이다. 손 작가의 작품이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건 그가 서울로 상경한 1979년부터 세상을 떠난 1988년까지 10년간. 이때 집중적으로 제작했던 게 ‘공작도시’ 시리즈다. 초기작의 다소 따뜻했던 분위기 대신, 날카로운 나이프에서 오는 속도감과 급한 자국 등은 도

시의 음산하고 우울한 모습들을 짙은 회색색과 암갈색이 기초를 이루는 화면으로 투영해 냈다.

땀방 잘려나간 나무의 스산한 모습, 내리진 철문 앞 아이를 안고 있는 노점상 앞을 무심한 듯 지나가는 쓸쓸한 남자의 옆모습, 병실 침대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지팡이 하나. 모두 쉽게 잊히지 않는 작품들이다.

그밖에 ‘시들지 않는 꽃’ 섹션에서는 담장 위의 나무 덩굴, 꽃가게와 단풍이 든 계절의 모습 등을 만날 수 있으며 ‘인물누드’에서는 1982년부터 솔집 여성을 소재로 그리기 시작한 ‘취녀’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회고전에서는 여수 MBC가 제작한 손상기 다큐멘터리를 편집해 보여주며 화구 등 유품도 전시한다. 또 매일 오전 11시, 오후 3시 도슨트의 설명이 진행된다. 전시 기간 중에는 손 작가의 작품과 유품을 보유하고 있는 샴터화랑과 손상기 기념사업회, 여수시에 유품 기증과 관련한 MOU도 체결될 예정이다.

한편 손상기 기념사업회는 여수시와 협의를 거쳐 내년께 여수시 3층사(옛 여천군청) 1층에 손상기 기념실을 열고 유품 등을 전시할 계획이다. 관람료 성인 2000원, 학생 1000원. 문의 061-808-708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공작도시-춥(동)’



‘공작도시-영원한 퇴원’



대통령상 명창들의 향연

24일 빛고을노인복지재단

(사)임방울국악진흥회(이사장 김중재)는 임방울 국악 경연대회 역대 대통령상 수상자들이 함께하는 흥겨운 국악공연을 펼친다. 24일 오후 1시 빛고을노인복지재단 공연장.

이날 공연에서는 대통령상 수상자인 최연자(8회)씨가 관소리 ‘춘향가’ 중 ‘어사 상봉’ 대목을 부르며 주소연(12회)씨가 ‘심청가’ 중 ‘심봉사 횡성가는 대목’을 선사한다. 또 김찬미(13회)씨가 ‘춘향가’ 중 ‘속대머리’, 노혜현(20회)씨가 ‘흥보가’ 중 ‘흥보 매맞는 대목’을 들려준다.

또 진흥회가 운영하고 있는 임방울국악교실 수강생들도 무대를 꾸민다. 다문화반 수강생들은 ‘난타’를, 박선옥 강사와 수강생들은 전통무용을 선보이며 민요 수강생들은 ‘남산산성’, ‘진도 아리랑’을 들려준다. 피날레 무대는 대통령상 수상자들이 함께하는 흥겨운 남도 민요로 꾸민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Jazz로의 초대

한국재즈협 광주지회, 오늘 송년 콘서트

흥겨운 재즈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사)한국재즈협회 광주지회(회장 최기철) 창립 1주년 송년 화합 재즈 콘서트가 20일 오후 6시 광주콘텐츠산업지원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서는 정통 재즈 뿐 아니라 올드팝송과 대중가요 등을 재즈와 접목시켜 다양한 무대를 선보인다.

그림 ‘All That Jazz’(최기철·최창렬·이찬우·오대승·안병철·안영선·윤건중)는 ‘I don’t Mean a thing’, ‘Take The A Train’, ‘Satin Doll’을 들려주며 그룹사운드 ‘ATTA’(조정훈·김경직·윤승배·안소정·최주성)는 보컬 장소영의 노래로 ‘Part time Lover’를 선사한다. 또 재즈 기타리스트 방병조 그룹(방병조·김동진·유영수)의 ‘Blue bossa’ 등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보컬리스트 김준이 특별 출연. ‘My way’, ‘Summer time’을 들려주며 색소폰 연주자 이정식도 무대를 빛낸다. 무료 공연.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응답하라 1904’

21일 양림동 마을축제

양림동 역사문화마을만들기 문화활동가 수강생들(광주평생교육진흥원 주최, 주스컴퍼니 주관)이 21일 양림동 호남신학대학교 티브라운 및 양림동 일원에서 양림동 마을축제 ‘응답하라 1904’를 개최한다.

양림동 역사문화마을만들기 문화활동가 양성과정은 마을축제 운영이 가능한 중급 이상의 양림동 문화활동가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으로 지난 10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주 15회 강의와 대구 골목길 답사로 진행했다. 수강생들이 직접 축제를 기획·홍보·운영하는 ‘응답하라 1904’ 축제는 마을 주민들과 기획자들이 모여 양림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작된다. 이후 양림동 마을 투어 ‘양림 한바퀴’를 통해 100여 년 전의 양림동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며 크리스마스 음악회 ‘시간 속으로’를 진행한다. 또 양림동 주민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초대, 직접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체험행사로는 사랑의 초 만들기 및 소인 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크리스마스 음악회

23일 풍암동 카페 ‘갈릴리153’

사단법인 문화예술협회가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는 크리스마스 음악회 ‘찬! 잘했어요’를 마련한다. 오는 23일 오후 7시 광주시 서구 풍암동 카페 ‘갈릴리153’. 올 한해 알차게 보낸 시민들에게 격려와 감사를 보내는 음악회로, 크리스마스 시즌에 어울리는 따뜻한 음악과 내용으로 진행된다.

메조 소프라노 강양은(호남신학대 명예교수), 테너 이상화, 플루트 연주가 김을열, 전자바이올리니스트 강명진씨가 출연해 ‘놀라운 은총’, 크리스마스 캐롤 등 경쾌한 음악을 들려줄 예정이다. 음악회 관람 예매는 전화 문의를 통해 이뤄지며, 모든 관람객들에게 아메리카노 커피가 제공된다. 062-384-2033.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청소년들, 금남로 접수

내일 ‘광주 청소년상상페스티벌’

청소년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만드는 시민참여 축제 ‘2013 광주청소년상상페스티벌’이 21일 낮 12시부터 밤 9시까지 금남로 차있는 거리에서 펼쳐진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시청소년단체협의회가 주관해 올해 처음 열리는 청소년상상페스티벌은 기획과정부터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했으며 지난 10월부터 5개분야 12개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이날 열리는 본행사는 ‘청소년 물레산타’ 활동, 청소년 심리 적성 검사, 시민과 동지족 함께 나누기 등 30여개 체험부스와 300인 밴드 퍼포먼스, 책읽는 벤치 만들기, 금남로 바다그림 프로젝트 등 다양한 참여형 거리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행사 당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금남로 1가 전일빌딩 앞부터 금남로 3가 금남근린공원 앞까지 교통이 통제되고 시내버스 노선은 우회한다. 청소년상상페스티벌은 본행사에 이어 오는 31일 고3 수험생과 정동진으로 떠나는 ‘무박 2일 희망가차여행’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문의 062-613-2290.

/이보람기자 boram@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트라이슈머**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트라이슈머® 20년은 가는데!!
단열복합시트방수

시공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막코팅 시공
4. 옥상 시공 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형 탈린트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